

## 제3절 뉴미디어 선두 주자 SBS

### 1. 준비하는 SBS의 상징, 목동 신사옥

#### 목동 신사옥 건립 추진 연혁

신사옥 건립은 1990년 방송사 설립과 동시에 본사 사옥을 비롯하여 필요한 스튜디오를 외부에서 임차,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SBS의 숙원사업이었다. 적정 부지를 물색해오던 SBS는 1994년 12월 6일, 서울시가 목동 중심축 개발을 위해 시행한 택지 매각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SBS는 일반 상업용지 중 목3공원에 인접해 있고 목동 중심축의 한가운데 자리잡은 양천구 목동 920번지 1필지 4270평을 새로운 방송센터 후보지로 정했다.

이 부지는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을 비롯하여 경인고속도로와 연계가 가능한 교통편의 지역이며, 방송회관, 기독교방송 등이 들어서 있어 장차 우리나라의 새로운 방송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았다. 1994년 12월 16일 실시된 입찰에서 SBS는 376억 원에 목표로 했던 920번

지 토지를 확보했고, 1995년 서울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목동 신사옥 건립 계획이 구체적으로 부각된 것은 1995년 7월 6일이었다. 이사회는 목동 부지 위에 지하 5층, 지상 25층에 연건평 2만 5000평 규모의 종합 방송 센터를 짓기로 의결하고, 방송 스튜디오를 필두로 사무 공간, 각종 편의시설, 복지시설을 배치하여 건설이 끝나면 드라마 부문을 제외한 모든 방송 시스템을 목동방송 센터로 통합, 이전하기로 했다.

8월에는 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본격적으로 건축 준비에 들어갔다. 설계 공모에는 설계 및 건축 일정을 비롯하여 사무 공간, TV 스튜디오, 라디오 스튜디오, 각종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 등 구체적인 사양이 제시됐다. 12월 7일 이사회는 공모를 통해 당선작으로 뽑힌 설계안을 최종 확정했다. 일진C&C와 영국 Richard Rogers Partnership이 합동 설계한 당선작은 투명 유리로 둘러

싸인 SBS홀을 비롯하여 독특한 조형미를 갖추고 있었다. 합동 설계팀은 이후 18개월 동안 계획설계, 기본설계, 시설설계를 단계별로 추진, 구체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설계안이 확정됨에 따라 SBS는 SBS방송센터 건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사옥 건축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1996년 5월 9일, SBS는 방송센터 건설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관리본부 산하에 방송센터건설국을 신설하고 김재백 부국장을 국장직무대행으로 발령했다. 방송센터건설국은 건설팀, 기계·전기팀, 방송시설팀 및 조명시설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됐다. 1997년 3월 5일, 방송센터 공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방송센터건설국은 목동 방송센터 부지로 사무실을 옮기고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온 나라를 뒤덮은 경제불황의 먹구름에 밀려 부득이 방송센터 건설 계획을 뒤로 미루면서, 11월 27일 기구 조직 개편으로 방송센터건



설국을 폐지했다.

윤세영 회장은 2000년 신년사를 통해 새 천년 포부를 밝히면서 'SBS를 21세기 디지털시대를 선도해나가는 첨단 종합매체로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다'고 다짐하고, 이를 위해 1차로 목동 사옥 부지에 짓기로 했던 최첨단 종합방송센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IMF 격랑을 피해 잠시 접어두었던 신사옥 계획을 재가동했다.

이 선언은 1998년 대비 매출 신장률 51.3% 성장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 성과를 거둔 1999년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앞으로 SBS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예측한 자신에 찬 결단이었다.

3월 17일 기구 조직 개편에서 SBS는 사장 직속으로 사옥건설단을 신설하여 신사옥 건설을 일임하고 관리본부장 김수용 상무를 사옥건설단장으로, 김재백 사장특별보좌역을 사옥건설팀장으로 임명했다.

이때 SBS방송센터, 목동종합방송센터 등 몇 가지 이름으로 지칭되던 SBS의 미래 사옥을 'SBS신사옥'으로 공식화했다.

새로 확정된 신사옥 건축 계획은 규모 면에서 당초 안보다 축소되었다. 지하 4층, 연면적 1만 8000평에 보도·스포츠·교양 스튜디오를 갖춘 8층 규모의 스튜디오 오동과 20층 규모의 사무동, 그리고 두 건물을 연결하는 atrium 공간 등 외양은 기존 설계안과 같았으나, 공개홀 계획이 미뤄지는 등 연면적이 7000평 가량 줄어든 것이다. 사옥건설단은 이 공간에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비

21세기 우리나라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SBS 목동 신사옥 조감도.

한 최첨단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내정하고, 방송 일정이 구체화된 DTV 방송시설 등을 갖춘 설계안을 새로 마련하여 5월 3일, 신사옥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균 SBS프로덕션 회장)에 상정했다. 위원회는 건설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원 합의로 사무동 2개층, 연면적 2500평을 늘리도록 결정을 내리고 6월 8일, 임원회의에 보고했다.

### 주요 시설 개요

신사옥 설계 안의 기본 컨셉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미래 종합 멀티미디어 그룹 SBS의 본사 기능이다. 신사옥 완공과 비슷한 시점에 본격화될 디지털방송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최첨단 정보 인프라 구축도 신사옥 설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다.

계획설계안은 부지 면적 4270평 중에서 1543평을 건축 면적으로 하여 스튜디오동 8층, 사무동 22층, 지하 4층 등 연면적 2만 500평으로 되어 있다. 1995년 당시 계획에 비해 15개 층을 줄이고 공개홀 설치도 미뤘으나 기본 외양과 설계 개념은 현상공모 당시와 비슷하다. 서울시 도시계획상 건폐율 60%, 용적률 1000%까지 허용되는 목동 중심축에서 SBS신사옥은 건폐율 36.44%, 용적률 317.78%로 녹지공간이 많은 쾌적한 방송환경을 추구하고 있다.

신사옥은 남쪽에 사무동, 북쪽에 스튜디오동이 22m

간격으로 나란히 들어서고, 그 사이를 철골과 복층 투명 유리로 감싼 atrium 공간이 연결하도록 되어 있다. atrium의 기능은 두 건물을 잇는 연결통로이면서 여러 가지 건축미를 가미한 휴게공간이다. 사옥건설단은 진입 공간을 길게 하여 출입 차량에 여유를 주고 건물의 품격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건물 위치를 당초 설계안보다 도로에서부터 8.1m 안쪽으로 이동시켰다. atrium 1층 동쪽을 정문으로 하여 보행자 주 출입구 및 차량 입구로 하고, 차량 출구는 북쪽으로 내어 목동 방향이나 경인고속도로 목동나들목을 통해 도심으로 진입하도록 설계했다. 지하 4개 층과 지상 주차 용량은 480대다. SBS는 이 진출입로 설계를 포함한 신사옥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2000년 5월 26일,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신사옥의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사무동은 철골 라멘조 Preflex Beam 방식을 채택했다. 이 방식은 기둥이 없는 공법으로 기둥이 많을 경우 공간 활용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건설단은 하중이나 진동에 영향이 없도록 건축하기 위해 동일 공법으로 건축된 영종도 신공항 건물과 시내 백화점 등 여러 건물을 현장 답사하여 그 안전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이러한 구조 위에 신사옥 외관은 알루미늄 패널과 유리로 마감할 계획이어서 완공될 경우 전체적으로 밝고 유려한 분위기를 자아내게 된다.

철탑과 옥상 시설을 제외하고도 지상에서 102m 높이로 우뚝 설 22층 사무동은 저층부에 기술 구역, 고층부에 사무 구역, 중간층에 회의 공간을 두는 입면 계획으로

설계했다. 사무동 설계의 압권은 13층과 14층을 터서 만든 대회의실이다. 통합 IBS ROOM에서 제어하는 화상회의 시스템과 국제회의 수준의 동시통역 시설, 대회의실 가장자리를 따라 배치한 규모별 소회의실과 각종 편의시설은 신사옥의 품격을 높여주는 주요 요소다.

건물 쾌적지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층고는 일반 건물보다 30~50cm 이상 높게 설계하여 기둥 없는 구조와 더불어 탁 트인 느낌을 주게 된다. 거기에도 층별, 구역별로 독립 운전이 가능한 공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근무환경 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이다.

신사옥은 또 초고속 인터넷망 등 급격히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 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 인프라 구축에 건설비용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기본적인 건물 관리에서부터 LAN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과 사무 자동화를 통합 관리하도록 설계했다.

스튜디오동은 7개 스튜디오와 부속시설을 갖춘다. 방송 제작의 향상성과 안정감을 고려하여 사무동과 달리 보다 견고한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를 택했다.

스튜디오동에는 180평, 120평 및 80평 규모의 교양 스튜디오, 80평 규모의 뉴스 스튜디오 2실, 같은 넓이의 스포츠 및 위성 스튜디오 2실 등 총 700평의 스튜디오와 부속실이 배치된다. 특수 자재로 설치할 차폐 바닥과 차

폐 벽은 스튜디오 상하 및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하게 된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특수공법으로 신사옥의 또 다른 자랑거리다.

본격적인 신사옥 건축공사는 2001년 3월에 착공하여 2003년 9월 말에 준공할 계획이다. 윤세영 회장은 신사옥 건립을 최종 결정하면서 인간 중심 건물이 되어 목동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능동적으로 개발하고 북돋워주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고 방송을 지향하는 SBS의 새 보금자리가 될 신사옥은 SBS의 위상에 걸맞게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와 기능을 갖춘 우리나라 새 명소로 탄생할 것이다.

## 2. 현실로 다가온 꿈, 디지털방송

### 디지털방송 추진 연혁

전자통신 기술 발달로 방송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디지털방송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DTV는 기존 아날로그TV에 비해 음질 및 화질이 혁신적으로 개선된 신기술이며, 필요에 따라 한 채널에 4~5개의 영상을 전송할 수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이 가능하다. 또 데이터방송에 의한 각종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결합된 쌍방향서비스 등 고도로 진보된 기능을 가지게 된다.

1997년 2월, 정부는 지상파 디지털



SBS는 국내 방송사 중 최초로 디지털 시험방송을 함으로써 한발 앞선 기술력을 입증했다.